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	3	음운론	음운변동 1
		문장론	올바른 문장(1) 사동 피동(1)
	3	한글 맞춤법	2
		표준어 규정	1
비문학	6	독해	내용 일치와 이해(4) 재배열(1) 논지 전개 방식(1)
	1	말하기	말하기(화법)(1)
	1	쓰기	고쳐 쓰기 (1)
문학	3	고전 문학	가사(1)
		현대 문학	현대시(1) 시나리오(1)
어휘	3	일반 어휘	의미 관계(1)
		한자어	한자성어 (1) 동자이음어(1)

2. 총평

이론문법과 어문규정이 6문항, 비문학이 8문항, 문학 3문항, 어휘 3문항이 출제되어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큰 어려움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법과 어문규정이나 비문학 영역의 문제들은 고난도는 없었으며, 한자어도 꾸준히 대비한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동자이음어나 쉬운 성어에서 출제되었다. 다만 고전문학에서 현대어 해석이 어려운 경우 내용 파악이 힘들었을 수는 있겠으나 출제된 작품이 잘 알려진 기본 작품이라 그 역시도 익숙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한 번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수험생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혹여 부족한 점을 발견한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어려운 내용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진 후에 어려운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복해가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찾아야 할 것이다.

문 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 ②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 ③ 내일이 이 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
- ④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 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

<정답> 2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정답 해설>

'안동 권씨'처럼 성(姓)을 말할 때는 '씨'가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 ① 자식간 → 자식∨간.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은 앞말과 띄어 쓰는 의존명사이다.
- ③ 이∨충무공 → 이충무공. 성과 호, 성과 이름은 붙여 써야 한다.
- ④ 카리브∨해 → 카리브해. '해'는 명사 뒤에 붙어 바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문 2.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밥이 찬져서 내 입맛에 맞았다.
- ② 아기가 이쁘디이쁜 미소를 짓고 있다.
- ③ 그녀가 내 소맷깃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 ④ 동생은 안경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경 도수를 더 돋구었다.

<정답> 3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한글맞춤법 + 표준어 규정

<정답 해설>

③ 소맷부리의 구석 부분을 의미하는 말은 '소맷귀'이다. '소맷깃'은 틀린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는 의미의 '차지다'는 '찰지다'와 함께 복수표준어이다. 따라서 활용형인 '차져서/찰져서'는 모두 어법에 맞는다.
- ② '이쁘다'와 '예쁘다'는 복수표준어이므로 '이쁘디이쁜'과 '예쁘디예쁜'은 모두 어법에 맞다. 또, 형용사 어간에 붙여 그 어간을 반복하여 뜻을 강조하는 연결 어미인 '-디'는 주로 '-디-은'의 구성을 보이며 모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④ 안경의 도수를 더 높게 한다는 의미의 '돋구다'는 어법에 맞는 말이다.

문 3.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의 일부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① 냇가 ② 윗옷
- ③ 훗날 ④ 예삿일

<정답> 2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한글맞춤법

<정답 해설>

‘윗옷’은 [윗옷 ⇨ 윗을 ⇨ 위돌]으로 발음되므로 ‘윗옷’으로 표기하는 것이지, 된소리 발음이나 ‘ㄴ’ 첨가가 일어나는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냇가[내까/넛까]: 순 우리말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③ 훗날[훈:날]: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로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④ 예삿일[예:산닐]: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문 4.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또는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됨으로써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역사의 속성을 견지한다. 이는 곧 과거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현재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 등장 인물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 ①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 역사드라마를 만들어야겠군.
- ② 역사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겠군.
- ③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역사드라마를 시청해야겠군.

④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역사드라마에서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지겠군.

<정답> 2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내용 일치와 내용 이해

<정답 해설>

맨 마지막 내용이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역사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②는 맞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제시문의 내용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문 5.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값진[갑진]: 탈락, 첨가 현상이 있다.
- ② 박과[박파]: 대치, 축약 현상이 있다.
- ③ 끓는[끓른]: 탈락, 대치 현상이 있다.
- ④ 발도[발토토]: 대치, 첨가 현상이 있다.

<정답> 3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음운 변동 현상

<정답 해설>

- ③ 끓는 ⇨ 끓는 ⇨ [끓른]
탈락 대치

<오답 풀이>

- ① 값진 ⇨ 갑진 ⇨ [갑진]
탈락 대치
- ② 박과 ⇨ 박과 ⇨ [박파]
대치 대치
- ④ 발도 ⇨ 발도 ⇨ [발토토]
대치 대치

문 8. 다음 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성어는?

내 집이 산속에 있는데 문 앞에 큰 개울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에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 언제나 수레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 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비교해 들어 보았다. 깊은 숲속에서 솔바람 소리 이는 듯하니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격분한 듯 들린다.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하니 이 소리는 교만하게 들린다. 많은 축(筑)이 차례로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성난 듯이 들린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놀란 듯 들린다. 약한 불 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하니 이 소리는 아취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와 우조(羽調)에 맞게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슬프게 들린다. 종이 창문에 바람이 문풍지를 울게 하는 듯하니 이 소리는 의아하게 들린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 ① 以心傳心 ② 心機一轉
③ 人心不可測 ④ 一切唯心造

<정답> 4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성어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큰 개울물 소리를 비교하여 보면, 때에 따라 듣기에 따라 같은 개울물의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린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같은 소리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므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④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가 가장 어울린다.

<오답 풀이>

- ①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② 心機一轉(심기일전):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
③ 人心不可測(인심불가측):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문 9.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 75. 북측 초소(밤)

성식: (우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워커 끈을 풀어서 다시 매 주며) 암마, 군인이 한 번 가르쳐 주면 제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매 줄 순 (쓰쓸해지며) 없잖아. (워커 끈을 매 주는 안타까운 표정. 일어서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참! (봉투에 싣 물건을 꺼내 들고 한 손으로 우진의 어깨를 짚으며 짐짓 느끼한 톤으로) 생일 축하해. 진.

또 한번 우엑! 하는 수혁. 너무 그러지 말라는 듯 옆에서 툭 치는 경필. 포장을 끄른 우진. 일제 수채화 물감 한 통과 붓 몇 자루를 내려다본다.

... (중략) ...

우진: (진정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도, 형들 줄려구 준비한 게 있어요.

수혁: 뭔데?

말없이 성식이 앉았던 자리로 와 앉는 우진. 모두들 궁금해 하며 주목한다. 잠시 침묵. 주머니를 뒤지며 시간을 끄는 우진. 찾는 물건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한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 이더니, 큰 소리로 방귀를 끼는 우진. 일동, 좌절하며 고개를 푹 숙인다. 낄낄대는 우진, 일어서서 테이블로 간다.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내 뭔가를 찾는 우진. 경필, 무표정한 얼굴에서 갑자기 오만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린다.

경필: (코를 막으며) 야아, 문 열어!

초소 문을 열러 가는 성식, 손을 내미는 순간 먼저 문이 열린다. 무심코 돌아본 경필, 굳어 버린다.

- 박찬욱 외, 「공동경비구역 JSA」 -

- ① 성식은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하다.
② 우진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든다.
③ 수혁은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한다.
④ 경필은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

<정답> 4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현대 문학 - 시나리오

<정답 해설>

제시된 글에서 경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우진의 방귀 냄새에 오만상을 찡그리며 문을 열라고 한 것을 보면 참을성이 강하다고 하기도 어렵고, 포용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다.

<오답 풀이>

- ① 성식은 우진의 워커 끈을 매 주고, 생일 선물도 준비한 것을 보면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우진이 준비한 것이 있다며 방귀를 끼는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보아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맞다.
③ 수혁은 우진이 준비한 것이 있다는 말에 “뭔데?”라고 물으며 궁금해 했다.

문 10. 다음 글에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국장: 교통 체증 문제는 승용차 10부제 실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사장: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불만스러운 제도입니다. 재정이 좋은 사업자는 번호판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박 위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어떨까요? 이 제도가 잘 활용되면 승용차 이용자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김 국장: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윤 사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자: 서로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10부제에서 상업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윤 사장: 상업용 승용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업용이지요.

김 국장: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방안도 찾기 어렵습니다.

박 위원: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 귀성길에 시행했던 고속버스 전용 차로제의 효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자: 버스 전용 차로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군요. 이번 토의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데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승용차 10부제와 같이 미진한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사회자: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② 김 국장: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
- ③ 윤 사장: 당면한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④ 박 위원: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4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말하기(화법) - 토의와 토론

<정답 해설>

④ 박 위원은 구체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 실시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참여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토의 진행 중 주제가 바뀔 수는 없으며, 사회자가 주제를 전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김 국장은 승용차 10부제를 주장하면서 10부제 실시에 따른 어려움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함을 말하였다.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윤 사장은 승용차 10부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문 11. 반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식: 몰상식'에서는 부정(否定)의 접두사가 붙어 반의어가 만들어진다.
- ②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와 '성별'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③ '오다: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요소와 '방향'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 ④ '하늘: 땅'은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어서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

<정답> 4번

<난이도> 상

<출제 범위> 어휘 - 단어들의 의미 관계

<정답 해설>

④ '하늘: 땅'은 공간적 대립으로 짝지어진 반의어로 방향 반의 관계에 속하며, 방향 반의어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대립 관계로 구분해야 한다.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는 반의어는 '쉽다: 어렵다, 크다: 작다, 뜨겁다: 차갑다' 처럼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을 이루는 것들이다.

<오답 풀이>

① '몰(沒)'은 그것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접두사로, 부정(否定)의 의미를 더하여 반의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② 반의어는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대조되는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와 '성별'의 대조적 요소가 있으므로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맞다.

③ '오다: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요소와 '방향'의 대조적 요소로 반의 관계를 이루며, 방향 반의 관계에 속한다.

문 12. 밑줄 친 부분의 고쳐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일을 한 사람은 민국예요.
→ ‘민국이’와 ‘이에요’가 결합하였으므로, ‘민국예요’는 ‘민국이에요’로 바꾸어야 한다.
- ② 교실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하므로, ‘주십시오’로 바꾸어야 한다.
- ③ 자신이 한 말은 반듯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맞게 ‘꼭’이라는 의미의 ‘반드시’로 고쳐야 한다.
- ④ 선수들의 잇따 부상으로 전력에 문제가 생겼다.
→ 동사 ‘잇달-’과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잇단’이므로, ‘잇따’는 ‘잇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답> 2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쓰기 - 고쳐 쓰기

<정답 해설>

② 명령형 종결어미 ‘-십시오’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 것이므로 고치지 않아야 한다. 문장의 끝에 ‘요’가 오는 것은 해요체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반말의 종결어미 뒤에 ‘요’가 덧붙는 형식이어야 한다. ‘주십시오-’는 반말 종결형이 아니라 선어말어미까지만 제시된 미완성형 서술어이므로 종결어미 ‘-오’가 결합되어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받침으로 끝나는 인명(人名)은 뒤에 접사 ‘이’를 결합하고 ‘이에요/이에요’를 붙이므로 ‘민국이이에요/민국이이에요’의 준말인 ‘민국이에요/민국이어요’로 고치는 것이 맞다.
- ③ 문맥상 ‘꼭 책임을 져야 한다’가 맞으므로 ‘반드시’로 고쳐야 한다.
- ④ 물체가 뒤를 이어 따르거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의미의 ‘잇따르다/잇달다’는 관형형 어미 ‘-ㄴ(은)’과 결합한 활용형이 각각 ‘잇따른/잇단’이므로 ‘잇따’를 ‘잇단’으로 바꾸는 것은 맞다.

문 13. 밑줄 친 한자의 독음이 다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復活 - 復命 ② 樂園 - 樂勝
- ③ 隆等 - 下隆 ④ 率先 - 引率

<정답> 1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어(동자이음어)

<정답 해설>

① 復活 다시(부) 살(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復命 뒤집을(복) 목숨(명):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오답 풀이>

- ② 樂園 즐거움(낙) 동산(원): 괴로움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樂勝 즐거움(낙) 이길(승): 힘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이김.

- ③ 隆等 내릴(강) 가지런할(등): 등급이나 계급 따위가 낮아짐.
下隆 아래(하) 내릴(강):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
- ④ 率先 거느릴(솔) 먼저(선):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함.
引率 끌(인) 거느릴(솔):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감.

문 14.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 ②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 ③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④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답> 1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올바른 문장

<오답 풀이>

- ② ‘아마’는 ‘~일 것이다’와 같이 추측형과 호응하므로 ‘아마 ~ 되었을까’는 어색하다. ‘아마’를 삭제하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 ③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쳐들어 높여야) 한다’에서 ‘국가 경쟁력’은 제고의 대상이 되지만, ‘국민 대통합’은 제고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④ ‘로서’는 자격이나 입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 ‘행복의 조건’은 자격이나 입장이 아니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또 ‘~로서 ~다는 것이다’의 구조도 어색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로 고치거나 ‘행복의 조건에는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있다.’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문 15.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
-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
- ③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다.

<정답> 4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문장론 - 사동과 피동

<정답 해설>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목적어나 부사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④ ‘보따리가 들려 있다’는 주어가 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주어인 ‘보따리’가 뒹(들어짐)을 당하는 의미의 피동문이다.

<오답 풀이>

① 주어 ‘목동이’이 부사어 ‘양들에게’ ‘뜯기다(뜯도록 시키다)’의 구조이므로 사동 표현이 드러난다.

② 주어 ‘아이들은’ 목적어 ‘종이비행기만’ ‘날리다(날게 하다)’의 구조이므로 사동 표현이 드러난다.

③ 주어 ‘태희는’ 목적어 ‘반지마저’ ‘보여 주다(보게 해 주다)’의 구조이므로 사동 표현이 드러난다.

문 16.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군산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식민 도시였다면,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서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옥구는 그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민 농촌이었다. 1903년 미야자키 농장을 시작으로 1910년 강점 이전에 이미 10개의 일본인 농장이 세워졌으며, 1930년 무렵에는 15 ~ 16개로 늘어났다. 1908년 한국인 지주들도 조선 최초의 수리조합인 옥구서부수리조합을 세우긴 했지만 일본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1930년 무렵 일본인은 전라북도 경지의 대략 1/4을 차지하였으며, 평야 지역인 옥구는 절반 이상이 일본인 땅이었다. 쌀을 군산으로 보내기 편한 철도 부근의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리부터 군산에 이르는 철도 연선의 만경강 쪽 평야는 90%가 일본인이 경영한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거다. 일본인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조선인은 ‘산비탈 흙구덩이’에 몰려 사는 처지라는 푸념 또한 과언이 아닐 거다.

- ① 인과적 연결을 통해 대상을 논증하고 있다.
- ② 반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풍자와 해학을 동원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논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시기별로 일본인이 농지를 차지한 비중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밝히며 군산과 옥구가 각각 식민도시, 식민농촌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문 17.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근대적 연애에서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의 만남과 둘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의 비중이 부각된다. 특히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가족 사이의 약속,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같은 외적 기준이 중시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옳다, 그렇다. 나는 영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영채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요,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설혹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 낼 책임이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다니지 못한 것이 도리어 한이 되고 죄송하거늘, 이제 그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모르는 체하고 있으리요.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여서 사랑하리라.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만일 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설혹 그가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양반의 집 혈속이요, 또 어려서 가정의 교훈을 많이 받았으니 반드시 여자의 아름다운 점을 구비하였으리라. 또 만일 기생이라 하면 인정과 세상도 많이 알았을지요, 시와 노래도 잘할지니,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형식은 가만히 눈을 떴다. 멍하니 모기장을 바라보고 모기장 밖에서 앵앵하는 모기의 소리를 듣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싱긋 혼자 웃었다. 아까 영채의 태도는 과연 아름다웠다. 눈썹을 짓고, 향수 내 나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살빛과 눈썹과 얹은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 더구나 그 이야기할 때에 하얀 이빨이 반짝반짝하는 것과 탄식할 때에 잠깐 몸을 틀며 보일 듯 말 듯 양미간을 찌그리는 것이 못 견디리만큼 어여뻔다. 아까 형식은 너무 감격하여 미처 영채의 얼굴과 태도를 자세히 비평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영채의 일언 일동과 웃고름 맨 모양까지도 어여뻐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번 더 영채의 모양을 그리면서 싱긋 웃었다. 도리어 저 김장로의 딸 선형이도 그 얹전한 태도에 이르러서는 영채에게 맞지 못한다 하였다. 선형의 얼굴과 태도도 얹전치 아니함이 아니지마는 영채에 비기면 변화가 적고 생기가 적다 하였다.

- 이광수, 「무정」 -

- ① 영채가 형식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면, 이를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②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형식의 영채에 대한 감정은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③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시와 노래에 능한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형식의 생각은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 ④ 영채의 외모와 행동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에서 영채에 대한 형식의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정답> 3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내용 일치

<정답 해설>

(가)에서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같은 외적 기준이 중시”된 것은 전통 사회의 가치관이라 하였으므로 ③에서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형식의 생각”은 근대적 사랑의 열정이 아닌 전통적 정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므로 상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근대적이라 보기 어렵다.

② (가)에 따르면 ‘가족 사이의 약속’을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랑의 모습이므로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약속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모습이다.

④ (가)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불려일키는 열정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영채의 외모와 행동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은 열정이 맞다.

<정답> 4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내용 일치

<정답 해설>

마지막 문장에서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④는 맞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는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② 첫 번째 단락에서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라고 하였으므로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단락의 끝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 처음부터 자연에 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온실효과는 지구의 환경을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해 주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평균 3, 4도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50 ~ 200년이나 체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 프레온은 전자 제품을 생산할 때 세척제 혹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인다.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공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생긴다.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①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는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 ②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
- ③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 ④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처럼 온실효과를 나타내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문 19. 다음 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흰 구름 뽀얀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이래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가.

… (중략) …

초목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매물커늘
조물(造物)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벌렸구나.
건곤(乾坤)도 가암열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 -

* 가암열사: 풍성하다는 뜻.

- ①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 ② 이 술 가져다가 사해(四海)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겠고야.
- ③ 모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높위하여 밝았는고.
- ④ 종조추창(終朝惆悵)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어 들리나다.

<정답> 1번

<난이도> 상

<출제 범위> 고전 문학 - 가사

<정답 해설>

제시된 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내용이므로 자연친화적 정서가 주를 이룬다.

①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를 시냇물 앞에 지어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우거진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라.”라는 내용에서 자연을 즐기며 사는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가 드러나므로 유사하다.

<현대어 풀이>

흰 구름 뽕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아양을 떠는구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공중에 떠갔다가 넓은 들판으로 건너
갔다가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석양과 섞여 가랑비마져 뿌리는구나.
... (중략) ...
초목 다 진 후에 강산(江山)이 문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눈 덮인 아름다운 경치)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천지가 풍성하구나, 간 데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 송순, 「면양정가」 -

<오답 풀이>

- ② 현대어 해석: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눠 주어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합시다.
⇒ 백성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한 후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가 드러난다.
- ③ 현대어 해석: 초가집 차가운 자리로 밤중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밝은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 밤중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인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워 부르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이 들리는구나.
⇒ 슬픔으로 인하여 흥겨움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트 중에서도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 ~ 2인용 땡기(dinghy)는 단연 요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땡기는 엔진이 없기에 오로지 바람에 의지해 나아가는 요트다. 그러므로 배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배는 바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뜰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해답은 삼각형 모양의 지브세일(jib sail)에 숨어 있다. 바람에 평행하게 맞춘 돛이 수직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면 앞뒤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진다.

요트의 추진력은 돛이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는 풍하범주(風下帆舟)와, 양력이 주(主)가 되는 풍상범주(風上帆舟)를 구분하여야 한다.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풍상 측에서 압력이 낮은 풍하 측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총합력이라고 한다. 이 총합력의 힘은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하여 요트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전진력과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으로 분해될 수 있다. 센터보드나 킬(keel)과 같은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진다. 비행기 날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돛의 주위에 공기가 흐를 때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의 공기 속도는 느려지고 풍하 측의 공기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므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풍하 측으로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총합력이 된다. 이 총합력은 풍하범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분해된다. 횡류력은 요트를 옆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서 센터보드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상쇄된다.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땡기는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 ②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③ 풍하범주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며,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 ④ 요트가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하게 된다.

<정답> 1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내용 일치

<정답 해설>

①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횡류력은 요트를 옆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서 센터보드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상쇄된다.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땡기가 횡류력으로 나아간다는 서술은 잘못된 것이다. 횡류방지장치에 의해 횡류력을 없애면서 전진력으로 나아간다고 하여 맞다.

<오답 풀이>

② 네 번째 단락에 “센터보드나 킬(keel)과 같은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서술하였다.

③ 세 번째 단락에서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는 풍하범주(風下帆舟)와, 양력이 주(主)가 되는 풍상범주(風上帆舟)를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서술하였다.

④ 세 번째 단락의 끝에 서술한 “풍압이 주(主)가 되는 풍하범주와 양력이 주(主)가 되는 풍상범주”, 네 번째 단락의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와 다섯 번째 단락의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를 참고하면 요트가 바람을 등질 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